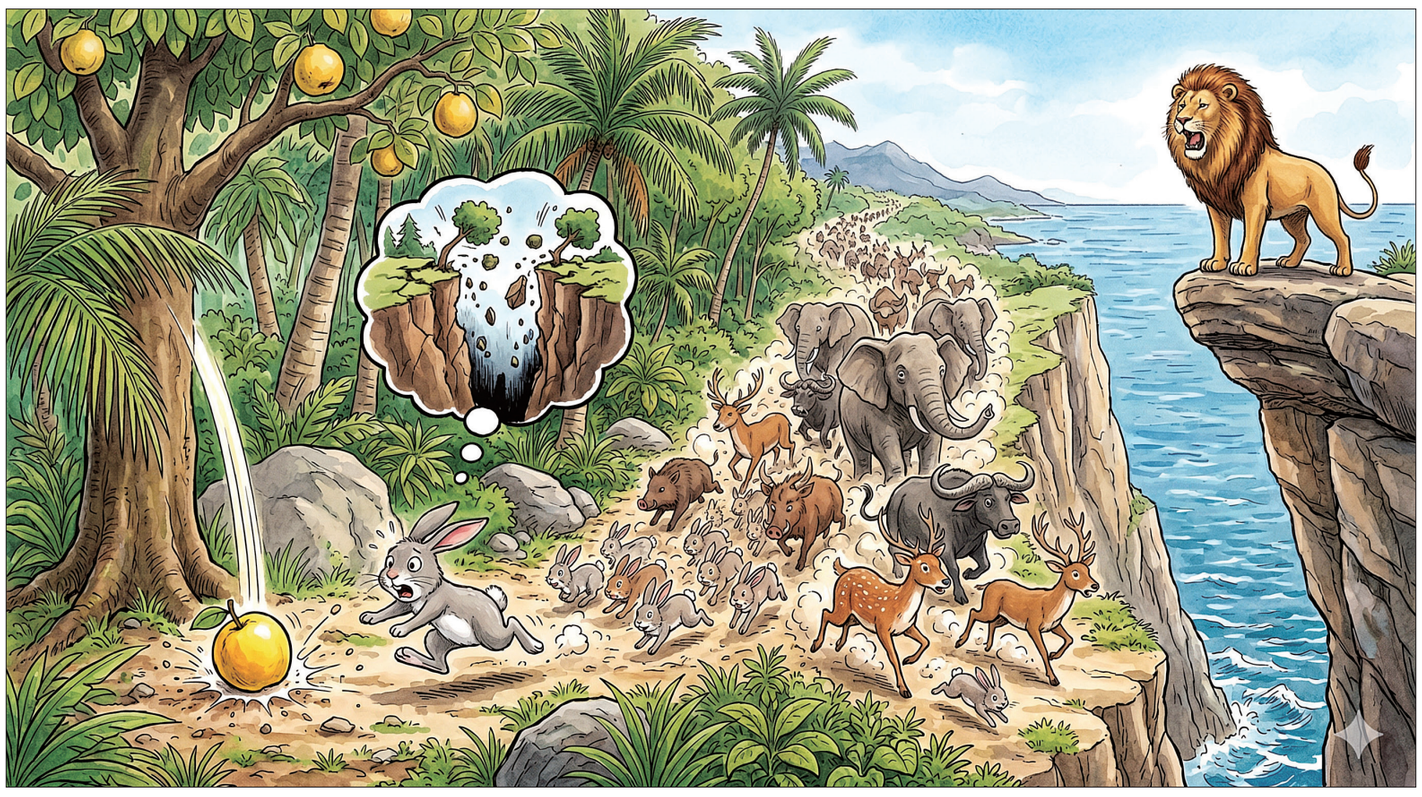
대지가 무너진다고?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③ 맹목적 믿음 : '토끼의 맹신'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맹목적 믿음이 객관적 사실을 압도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서구 중세 사회에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은 가설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천동설은 종교적 신앙과 결부돼 그 어떤 반론도 허용되지 않았다.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그야말로 무조건적 믿음 앞에서 과학이 무릎을 꿇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암흑의 시대였다.

어떤 믿음이 한번 굳어지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드러나도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아직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명(無明), 즉 어리석음이라 한다. 무명이 한번 작동하면 웬만해서는 멈추기 어렵다. 오직 지혜의 불빛만이 이를 물리칠 수 있다. 마치 방 안에 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명상이나 염불, 절 등은 무명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맹목적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불교 동화가 있다. 바로 '다다바 자타카(Daddabha-Jātaka)'에 나오는 토끼 이야기다. 다다바란 팔리어로 어떤 물건이나 과일이 떨어질 때 '쿵!', 혹은 '탁!' 하고 나는 소리를 가리킨다.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토끼가 대지가 무너지는 줄 알고 큰 소동을 일으킨 이야기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 때의 일이다. 외도들이 고행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저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지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자기 몸을 괴롭히면 업(業)이 모두 소멸한다는 헛된 믿음을 지적하면서, 지혜로운 사자 덕분에 동물들이 목숨을 구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 서쪽 바다 근처 종려나무 숲에 겁이 많은 토끼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토끼는 벨루바(beluva, 모과) 나무 아래 누워서 '만약 이 땅이 무너지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벨루바 열매가 종려나무 잎에 '쿵!' 하고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다. 토끼는 정말로 땅이 무너진 줄 알고 사력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를 본 다른 토끼들이 왜 그렇게 달아나는지 물어보자, 그는 대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 소리를 들은 다른 토끼들 역시 겁에 질려 뛰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숲속은 수천 마리의 토끼들이 떼를 지어 질주하는 경주장이 되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본 사슴들이 왜 그렇게 뛰느냐고 묻자, 토끼들은 그저 땅이 무너진다고 소리칠 뿐이었다. 이에 사슴들도 대열에 합류해서 뛰기 시작했고 멧돼지, 고라니, 물소, 그리고 거대한 코끼리까지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달렸다. 그런데 길 끝에는 거대한 절벽과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대로 간다면 모두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때 밀림의 왕 사자가 산 정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사자는 포효를 하면서 그들의 행렬을 가로막았다. 사자의 위엄에 압도당한 동물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

"너희들, 왜 그렇게 도망치고 있느냐?"

사자의 물음에 코끼리는 그저 땅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땅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느냐고 사자가 다시 묻자, 코끼리는 물소에게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물소는 고라니에게, 고라니는 멧돼지에게, 멧돼지는 토끼에게 들었다는 답이 이어졌다. 사자가 토끼에게 정말 땅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냐고 묻자, 토끼는 나무 밑에서 분명 땅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답했다.

사자는 동물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고 토끼와 함께 소리가 났다는 숲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땅이 갈라진 흔적은 없고 종려나무 잎에 떨어진 벨루바 열매만 보일 뿐이었다. 상황을 모두 파악한 사자는 동물들에게 땅이 무너진 것이 아니니 모두 돌아가라고 말했다. 지혜로운 사자 덕분에 동물들은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맹목적 믿음의 위험 보이는 불교 동화
'쿵' 과일 소리에 땅 무너진 줄 안 토끼
토끼 말만 믿고 이어진 동물들의 질주
터무니없는 믿음의 원인은 무지(無知)
색 비우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얻길

부처님은 전생의 토끼들이 지금 고행하고 있는 어리석은 수행자이며, 지혜로운 사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마쳤다.

믿는다고 사실이 되지 않는다

숲속에서 일대 소동을 벌인 토끼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전래동화 '호랑이와 곶감'이 떠올랐다. 동물들이 토끼의 말만 듣고 지구가 무너진다고 믿은 것이나, 호랑이가 아이와 엄마가 나누는 이야기만 듣고 곶감이 자신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믿은 것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동화 속 동물이나 호랑이 모두 남에게 들은 것을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무조건 믿었다는 점이다. 오직 지혜로운 사자만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잘못된 믿음을 지적했을 뿐이다.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예컨대 1923년 일본 관동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를 저지른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 믿은 일본인들은 극도로 흥분해서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맹목적인 믿음이 지진이라는 공포, 가짜 뉴스와 결합해 집단 광기를 일으킨 것이다. 군중심리와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무조건 질주했던 동화 속 동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시 그들을 멈춰 세운 지혜로운 사자가 일본에 있었다면, 수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하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믿음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믿음과 앎에 대한 무지(無知)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믿음이란 세계에 대해 옳다고 받아들이는 해석이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분명 옳거나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우리는 여기에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앎(Knowing), 즉 지식이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이처럼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거나 그것이 사실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불완전한 믿음이나 가설에 머무르게 된다. 예컨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앎이라고 할 수 없다. 신이 존재한다거나 전생이나 내세가 있다는 종교적 언명 또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완전한 믿음에 해당한다. 맹목적 신앙이 난무하고 있는 오늘날 자신이 왜 종교를 믿는지, 그것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인지 성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대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귀납법(歸納法)을 창시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귀납법이란 구체적인 사실이나 경험에서 보편적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는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연역법이 충분한 실험과 관찰을 거치지 않으면, 몇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컨은 이를 가리켜 '우상'이라고 했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설, 종교적 권위에 의지한 맹목적 믿음 역시 그에게는 우상일 뿐이었다.

자타카에 등장하는 토끼와 동물들은 베이컨이 지적한 우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대지가 무너진다고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지,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다. 토끼의 무지와 공포가 과일 떨어지는 소리와 만나 지구가 멸망한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자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는 없는 법이다. 온갖 가짜 뉴스가 난무하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오늘날 더욱 새겨야 할 대목이다.

부처님 역시 자신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무척 경계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옳은지, 그것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성찰한 후에 공감이 되면 믿으라는 뜻이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며, 이럴 때 비로소 삶을 질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맹목적 믿음에 매우 취약하다. 요즘처럼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진실이라고 믿는다. 설령 그 뉴스가 잘못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이다.

맹목적 믿음을 불교에서는 '색(色)'이라는 한 글자로 압축해서 설명한다. 한마디로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믿는다고 해서 옳거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색깔[色]을 텅 비우는[空] 색즉시공(色卽是空)을 〈반야심경〉에서는 강조한다. 불교 동화를 통해 이런 사유와 성찰이 깊어지고 사자와 같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如實知見] 지혜를 얻으면 좋겠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